道, 경제위기·가뭄 대응 882억 긴급 투입

농·어업인 전기요금·면세유 인상액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민생대책 발표

전남도가 경제위기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882억원을 긴급 투입,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27일 경제위기, 가뭄 등으로 어려운 도민을 위한 전남도 긴급 민생대책 브리핑을 열고 예비비 등 882억원 긴급 투입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종합 지원 대책과 7월의 물가 민생안정 긴급 대책 이후 세 번째 대책으로 경제위기와 가뭄 등에 따라 어려운 도민의 민생을 돕기 위해 긴급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근 크게 인상된 농사용 전기요금과 유가 등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개월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50%인 84억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또한 지난 10월까지 지원해 농업인의 호응이 컸던 면세유 인상액 지원은 252억원을 추가 투입해 12월까지 연장 지원한다. 내년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도 강력 건의하고, 도 차원의 검토도 함께 할 계획이다.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마련해 기업당 2억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한 연 4%의 이자 8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마트 오더 등 디지털 기기 구입에 10억원을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내년에도 이어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운 홀로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에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가구당 20만원씩 난방비 총 111억원을 긴급 지원해 어려운 도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계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식수 부족으로 어려운 소규모 섬 10곳에 50억원을 지원해 개소당 5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도민 물 절약 생활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도민 등에게 양변기 절수기 등 물 절약 절수기기 보급비 7억원을 지원한다.

김영록 지사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따뜻한 사랑과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 공동체 전남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1면 '서진 "상고 포기"'서 계속

강 시장은 "취임 초 6개월 안에 해법과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했던 5+1 현안 사업 중 어등산 관광단지가 가장 어려운 난제였으나 서진건설의 광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사업 추진에 완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서진건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신세계프라퍼티는 28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부지를 대상지로 한 복합쇼핑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계획서 접수 즉시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투명·공정성의 가치 아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22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박혜선 고법판사·김영훈 고법판사)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27일 광주 동구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한 이병훈 국회의원과 임택 동구청장 등 내빈들이 축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는 생활문화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실, 마을사랑채, 주민자치회 사무실, 문서고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광주동구 제공〉

"마을활동가 육성해 광주형 주민자치를"

姜시장 월요대화…마을자치 활성화 방안 의견 수렴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와 함께 열세번째 월요대화를 열어 마을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열린 월요대화는 ▲주민자치회의 성과 및 권한·책임 한계 ▲주민 참여 단체·개인 발굴 및 역량 강화 ▲대표성 확보 등 제도적 문제점 ▲주민단체의 소통(협치) 방법 ▲행정파트너로 지역발전 견인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오갔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주를 이뤘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은 "주민자치회는 과거 각 동의 자문기구에서 지금은 근린생활권 정식 회의체로 정착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연계사업 발굴, 중간지원조직 구성, 마을활동가 발굴·역량 강화 등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씨뿌리기 단계에 있고 광주만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주민 의견을 모아 도시재생, 커뮤니티공간 마련, 돌봄, 골목주차 등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연 마을자치연구소 대표는 "행정과 의회의 주민 의견수렴 문제를 보완하고 공동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자"며 "주민자치위원, 마을활동가 등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동수 광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 문제 해결 방안을 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주민자치는 주민들과 삶을 나누려는 마음이 중요한 만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공유해야 주민자치회가 바르게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김희련 광주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표는 "마을활동가는 관계노동자"라며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주민을 만나 의견을 듣는 협치의 과정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가장 큰 성과이자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필순 시의원은 "주민 참여 활성화로 내 삶의 변화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5개구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마을자치협약'을 마련해 광주형 마을자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선강 기자

고흥에 전국 최초 어선건조지원센터 조성

道, 조선·검사·연구 집적화 국내외 시장 선점

전남도는 27일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 국비를 확보, 전국 최초로 고흥 도양읍 일원에 조선소, 검사소, 연구소 등을 집적화해 어선 조선산업을 규모화한다"고 밝혔다.

어선건조지원센터는 산재한 소규모 어선 조선소와 검사소, 연구소 등을 집적화해 친환경·고효율 어선 건조 기반을 구축, 화재와 환경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어선건조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데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400억원·군비 90억원)을 들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고흥 도양읍 일원에 어선 건조 진수를 위한 몰드 제작시설, 트레일러, 크레인 등을 갖출 예정이다. 또 지원센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소, 설계소, 연구소, 사각수조 등 기술지원시설도 구축한다.

전국 어선 조선소 200여개 중 114개소가 운영 중인 전남에 어선건조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집적화를 통한 소형어선 조선산업 육성에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또한 어선 검사 이동거리 단축과 불법 증개축 등 사회적 문제 해소, 연간 3천억원의 생산유발과 6천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재정 기자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식품 폐기량 줄고 소비자 안심 향상 기대

전남도는 27일 "정부 방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 허용 중심의 '유통기한'이 섭취 가능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식품 폐기량은 줄고 소비자 안심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인 것과 달리,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기존 유통기한보다 소비자 중심 표시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식품 유형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산출,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로 6일 가량 길어지고, 유산균음료는 8일, 빵류는 11일 늘어나게 된다고 발표했다.

1985년부터 시행한 유통기한 표시제는 이후 38년 만에 폐지되지만 냉장보관 우유 및 환원유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0년까지 기존 유통기한을 사용,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한다.

또 기존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재정 기자

▶1면 '내년 광주시정·전남도정 방향'서 계속

시민 삶에 재미와 활력을 더하는 '영산강 Y벨트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담은 영산강 Y벨트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내년 4월 열리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광주의 멋과 맛, 의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도정, 균형발전 중심지, 행복공동체 건설 등에 매진하겠다는 3대 도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세계로 우뚝 서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30조원 규모),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우주발사체 특화산단,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그린수소 에너지섬, 분산에너지시스템, 글로벌 IT 기업이 모이는 RE100 전용산단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세계적인 과학 중심지 육성, 문화·예술·관광산업이 융복합된 글로벌 관광벨트 조성, 농축수산물 미래 생명산업 육성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균형발전 중심지 견인을 위해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전남 수도 건설, 신성장거점 육성, SOC 확충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은 전북·제주와의 초광역 해상풍력 산업벨트, 경남과의 우주산업벨트, 부산·경남과의 탄성소재벨트,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조속한 경전선 완공,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광주-고흥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이다.

'행복공동체 전남'의 경우 호남 청년아카데미 운영,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 확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W 부실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픈 상담◀
절차적 편의 법절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JMA 채권추심 전문법인 (주)제이엠신용정보

구인모집공고
1천만원 소개 성과수수료
- 분양아파트 소개 업무
- 모델하우스에 고객 동반 방문
- 전문상담사 별도 성과수수료 1천3백만원
- 광주 최고급 아파트 분양홍보
입사문의 010-3205-6688

광주역앞 양한방용 병원건물 급매

○ 광주역앞 이면도로 코너
○ 상업지 대지534㎡ 6층연건평1,345㎡
○ 병실25개,70베드,승강기1대 주차16대
○ 스프링쿨러,소방시설 2022.8월 법정시설 완비
○ 양한방 의료장비 완비
*** 인수와 동시에 빈몸 영업가능
[급매] 27억5,000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